

투데이 칼럼

장수군 100만 관광 시대, 이제 '하룻밤' 경쟁이다

지난 한 해 장수군을 찾은 관광객 수가 98만385명을 기록했다.

100만 관광 시대가 눈앞이다. 그동안 누리파크, 스키레저파크 등을 거점으로 외연을 확장해온 결과다. 장수군은 2024년 관광산업과를 신설하고, 흩어져 있던 관광명소 관리를 하나로 모으는 등 관광자원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이제는 양적 팽창을 발판으로 질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관광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과격한 가운데, 최근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은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방문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겪게 될 불편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100만 관광시대' 삼폐인을 터트리기에 앞서, 우리 지역을 방문한 이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장수군은 트레일 레이스 뿐만 아니라 칠명산성 관광자원화 등 역사문화권 관광산업단지 조성, 논개생가지 재생사업, 신광재 신약관광진흥지구 조성 등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숙박시설이다.

신약 트레일 레이스, 스키대회, 축구대회 등 각종 스포츠 대회 참가자와 방문객들은 잘 곳이 없어 장수에서



최 한 주

장수군의회 의장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당일 귀가하거나 남원 등 인근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체험과 외식, 농특산물 소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인구가 자연과 문화, 먹거리와 농특산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이들이 각종 행사와 대회 참가에 그치지 않고 농촌체험과 스키·트레킹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지역음식점을 이용한 후, 하룻밤 자고 돌아갈 때 장수 한우·사과·오미자 등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료컬푸드 및 직거래 판매체계를 연계해야 한다. 숙박은 곧 소비활동으로 이어진다.

특히 트레일레이스 참가자들은 일반 관광객과 달리 동호인이나 가족, 친구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대회 특성상 사전 답사와 숙박, 식사, 재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춰 군 관광산업과는 트레

일레이스를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사업을 역전 추진 중이다.

또한, 대회뿐만 아니라 트레일야카 데미, 사진 코스 체험, 료컬푸드 연계 등 연중 진흥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를 찾을 수 있는 트레일 도시로 자리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외 소상공인 및 기업 컨설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여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숙박시설 신축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농협이 협력하여 농외소득 확대와 6차산업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민박을 고급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의 기존 주택과 유흥시설을 활용하고, 신규 숙박시설은 주민 주도형으로 희망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리모델링 비용과 환경개선 사업은 행정이 보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농

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순환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스포츠 대회 참가자들이 단순 방문객이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로 이어져 외식업·체험업·농특산물 판매 증가와 재방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행정과 주민, 농협이 함께 협력하여 '스포츠 + 체류관광 + 농촌체험 + 료컬푸드'가 연계된 지역순환형 경제모델을 구축한다면,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활력 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립트레일센터, 소방심신수련원 같은 기관 유치는 상시 숙박 수요를 창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될 때 비로소 민간 숙박 시장도 자생력을 갖추게 된다.

전남 나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이용시 지역사랑상품권과 포인트, 관광지 할인 등의 혜택을 지급하는 '1박2일'이라는 지원책을 내세우며 체류형 관광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수군도 질문을 바꿔야 할 때다.

말마나 오래 머물고 무엇을 경험하며, 지역 안에서 어떤 소비를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100만 관광 시대'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장수관광의 경쟁력은 이제 방문객 숫자가 아니라 체류시간으로 결정될 것이다. '하룻밤 더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들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설

어느 배우 명예훼손 구속적부심 심사

배우 김수현 씨를 둘러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고 김재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 적부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부터 명예훼손·협박·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를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 대표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찰관 3명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만인 지난달 31일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이다.

김씨의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다고 김재론 씨와 교제했고, 김재론 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D)을 활용해 조작된 김재론 씨의 음성을 방송에 내보낸 혐의도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달 1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어느 기수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수령 혐의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수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국내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싸이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은 과정에서 직접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약물은 수면 장애와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인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 우려가 높아 대면 진찰과 본인 수령이 원칙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료진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싸이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약물을 처방받고 매니저에게 대리수령하게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과거에도 싸이는 여러 차례 법적 논란으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2001년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거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그는 감작스러운 인기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감, 새 앨범 출시를 앞둔 초조함으로 인해 손을 댔다고 고백했다.

독자재언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배려

지난 2월 전북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3년 18만49천 532명, 2024년 20만4천390명, 2025년 22만 4천74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예방과 배려의 시각이 절실히 필요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고령운전자는 오랜 운전 경험과 안정적인 운전 습관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시야와 반응속도, 판단력이 저하될수 있어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간 운전이나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사고위험이 커질수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

기적으로 확인하고, 운전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운전 시간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운전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참여 역시 큰 도움이 된다.

사회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확대와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의 실질적인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 역시 중요하다.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안전한 이동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정태철 순창경찰서 교통수시팀장 겸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